

 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	
2019년 11월 1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서재호 팀장(044-201-1541), 최희숙 사무관(1545)/ 제공일: 11월 14일(총 7매)			

적령시기 농사짓고 안정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, 2019년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

- 《 주 요 내 용 》
- ◆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 3개소 지정
 -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 :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
 -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4호 : 고성 해안지역 둥병 관개시스템
 -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5호 : 상주 전통 꽃감농업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 ‘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’, 제14호 ‘고성 해안지역 둥병 관개시스템’, 제15호 ‘상주 전통 꽃감농업’을 지정한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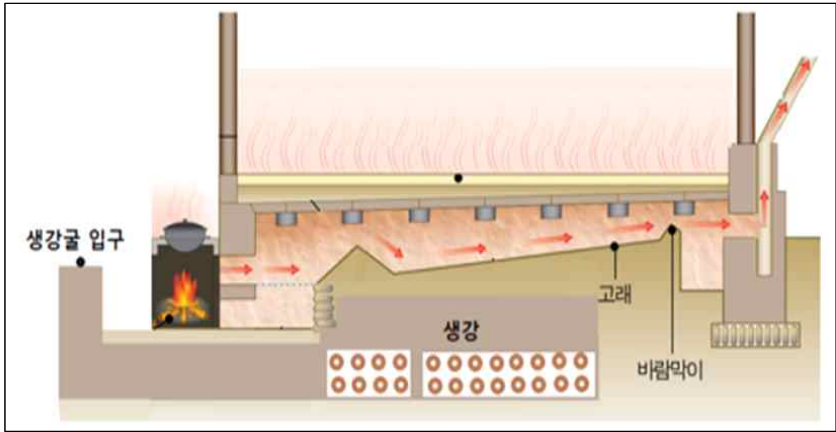
-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·사회·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·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하여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으로 2013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다.
- 이번에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난 6월말 시·군의 신청 이후 4개월에 걸쳐 농업유산자문위원회* 자문회의(2회)와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.

* 농업유산자문위원회 : 전통문화, 생태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(17명)로 구성

□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‘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’은 겨울철 생강종자 보관을 위해 토굴을 활용한 저장시스템 등이 현재까지 유지 전승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.

- ‘온돌식 생강굴’은 고래* 밑에 생강 저장굴을 만들고 고래에 바위를 깔아 아궁이의 열기로 바윗돌을 데워서 생강종자 보관의 적정온도를 유지토록하는 원리이다.

* 고래 : 방의 구들장 밑으로 낸 고랑



□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4호로 지정된 ‘고성 해안지역 둥병 관개시스템’은 해안지역 특성상 하천이 발달하지 못하여 농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둥병을 조성하고 활용하는 점이 중요농업유산으로 높이 평가되었다.

- 고성은 약444개의 둥병이 지역 내 분포되어 있고 저수량 규모별로 최소 2m³부터 최대 3,900m³까지 다양한 크기의 둥병이 있어,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 시설로 현재도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.

□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5호로 지정된 '상주 전통 곶감농업'은 감 재배 및 곶감 제조를 위한 감나무 접목기술 계승을 통해 '상주등시' 고유품종을 오랫동안 이어온 역사성으로 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.

○ 상주곶감은 과거부터 공물로 진상된 기록과 조선시대 조리서인 '시의전서(是議全書)'에 곶감을 활용한 조리법 등 상주지역 음식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.

□ 신규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에 대해서는 **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 보전관리 예산을** 지원할 계획으로,

○ 해당 지역에서는, 유산자원의 복원 및 발굴, 시설·경관·전통기술·생태 등의 정비작업, 전통기술 전승 교육 등 **보전관리** 활동과

○ 유산과 연계된 브랜드 개발, 유산자원을 활용한 체험·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**가치제고**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.

□ 농식품부 조재호 농촌정책국장은 "농업유산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**생동하는 자산**이다. 단순히 보존·유지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, 농촌지역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**활성화**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산의 가치를 국민들과 공감하는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."고 말했다.

참고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설명자료

1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

지정기준	특 징
역사성	○ 생강종자 보관을 위하여 토굴을 활용한 저장시스템 구축, 온돌식 생강 저장방식은 산가요록(1450년)에 최초 기록 ○ 세종실록지리지(1454년)에 전주 특산으로 생강이 기록되어 있고, 동의보감(1610년)에는 '생강은 우리나라에서 오직 전주에서 생산' 기술됨, 1930년 한국 최초 생강조합을 구성
생계기여, 농업기술·문화, 경관형성 등	○ 온돌식 저장굴을 이용한 고온성 작물인 생강 씨종자의 저장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 전승되고 있음 ○ 생강전통농법은 종강선별썩튀우기, 땅고르기, 땅심돋기, 생강격기, 종자절강, 경운파종, 생강풀뒹기, 김매기, 수확 후 저장, 윤작준비의 순으로, 생강관련 고문서인 '한정록', '산림경제', '사시찬요초'에 언급된 방식과 동일하게 농법 유지
 < 생강굴 단면도 >	
 < 생강굴 위치(마루 밑)>	
 < 수직강하식 생강굴 >	
 <수직강하식 생강굴 내부>	

② 고성 해안지역 둥병 관개시스템

지정기준	특징
역사성	○18세기 저술된 '승충명록' 기록에 따르면 고성지역은 샘물을 이용한 관개방식으로 벼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알수 있음, 수원으로서 둥병의 기능은 현재도 이용되고 있음
생계기여, 농업기술·문화, 경관형성 등	○해안지역 특성상 하천이 발달하지 못하고, 다우지역에 속하지만 빗물이 남해안으로 빠져나가 농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둥병을 조성 ○둥병의 유형은 자갈등으로 석축을 쌓은 형태, 자연형 소류지 및 생태습지와 같은 물웅덩이 형태로 구분 ○둥병 조성 위치는 벼농사에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농민들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선정 ○다양한 형태의 둥병과 농작물이 조화를 이루는 농업경관



< 둥병의 전경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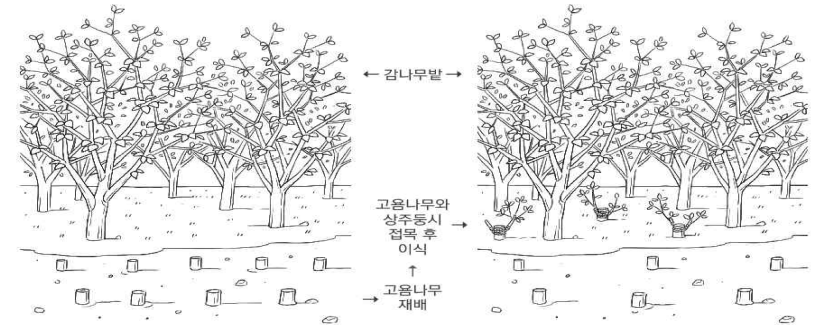
< 측벽에 석축을 쌓은 둥병 >



< 둥병의 위치 표시(원) >

③ 상주 전통 꽃감농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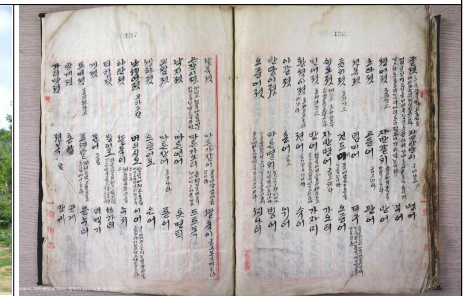
지정기준	특징
역사성	○세종실록지리지(1454년), 예종실록(1468년)에 상주의 꽃감이 공물로 궁중과 중앙관서에 헌납되는 특산물이었다는 기록 ○수령 750년된 감나무와 200년 이상된 감나무군락지의 보존
생계기여, 농업기술·문화, 경관형성 등	○구릉성 산지는 평지보다 일조량이 풍부하고, 산림에서 수분의 흐름으로 배수가 양호하여 감 재배의 최적지로 논농사와 감농사를 위한 적절한 토지이용과 감 재배지 선정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음 ○감나무와 고욤나무를 접목하여 '상주동시' 품종을 보존해옴 ○최적의 원료감 생산 지식, 햇별과 바람 등 숙성을 거치는 천일 건조방식으로 꽃감을 만드는 전통방식이 계승되고 있음 ○상주지역의 음식을 담고 있는 조선시대 조리서인 '시의전서(是議全書)'에 꽃감을 활용한 음식과 주민들에게서 이어져온 다양한 음식문화가 남아 있음



< 고욤나무와 상주동시의 접목 >



< 하늘아래 첫감나무 >



< 시의전서 >

참고2

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 *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

지정번호	명칭	지정범위	주요 특징
* 제1호('13)	청산도 구들장 논	완도청산도 전역(5.0ha)	○ 급경사로 돌이 많고 물빠짐이 심하여 논농업이 불리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 온돌방식을 도입, 독특한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와 논 조성
* 제2호('13)	제주 밭담	제주도 전역 (542ha, 22,108km)	○ 돌, 바람이 많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밭담을 쌓아 바람과 토양유실 방지, 농업 생물다양성, 수려한 농업경관 형성
제3호('14)	구례 산수유농업	구례군 산동면 (228ha)	○ 생계 유지를 위해 집과 농경지 주변 등에 산수유를 심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 형성, 다양한 생물 서식지, 시비와 씨 제거 등 전통농법
제4호('14)	담양 대나무 밭	담양읍 삼다리 (56.2ha)	○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며 대나무숲은 독특한 농업경관 형성, 죽초액과 대나무숯을 활용하여 병충해 방제 및 토양개량 등 전통농법
* 제5호('15)	금산 인삼농업	금산군 일원 (297ha)	○ 인삼재배의 최적지, 재배지 선정, 관리, 재배, 채 굴, 가공 등 전통농법 유지, 주변 산과 하천 이 어우러지는 경관 형성
* 제6호('15)	하동 전통 차농업	하동군 화개면 일대 (597.8ha)	○ 생계유지를 위해 1,200년 동안 전승된 전통적인 농업, 풀비배 등 전통방식의 차 재배 유지, 차밭 주변의 산림과 비위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관 형성
제7호('16)	울진 금강송 산지농업	울진군 금강송면 북면 일대(14,188ha)	○ 왕실에서 황장봉산으로 지정 관리,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송계와 산림계를 조직하여 관리, 주변계곡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 형성
제8호('17)	부안 유유동 양잠농업	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일대(58.9ha)	○ 뽕재배에서 누에 사육 등 일괄시스템이 보전·관 리되고 친환경적 뽕나무 재배, 생물다양성, 주변 산림과 뽕나무밭이 조화된 우수한 경관
제9호('17)	울릉 화산섬 밭농업	울릉군 일대 (7,286ha)	○ 급경사지 밭을 일구면서 따죽지를 조성하여 토양유실 방지하고 주변 산림지역의 유기물을 활용하였으며, 산림과 해안이 어우러지는 패치형태의 독특한 경관
제10호('18)	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	의성군 금성면 등 4개면 일원	○ 삼한시대 조문국시대부터 2,000년의 농업역사를 가지고 있는 금성면 일대는 약 1,500개의 제언이 축조, 이를 통해 농업용수를 저장· 활용함으로써 이모작 전환시스템 구축
제11호('18)	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	보성군 일원	○ 새끼줄을 기준삼아 경사지 등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맞추는 계단식 차밭 조성 기술과 경관 형성
제12호('18)	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	장흥군 일원	○ 반음반양의 차 재배환경 조성 및 친환경 농법, 발효차 전통 제다 지식체계, 굽는 과정이 추가되는 독특한 청태전 음다법 등 구축·전승